

## '87년의 축산전망

문 기 한\*

작년 한해 축산물은 물론이고 일반 농산물까지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침체되어 농민들의 소득에 주름살이 더하였는데 농산물은 且置하고 축산물쪽만 볼때 그 원인은 주로 과잉사육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에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 축산업이 이러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궁금증을 더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부존자원면에서나 사육구조면에서 또는 소비구조면에서 볼 때 서구형 축산과는 처음부터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고 흔히들 우리의 농업구조나 식단형태가 아주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게 되고 또 실제로 비교해 보면 마치도 우리나라 농업 또는 축산업은 눈을 감고 일본의 뒤만 따라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놀라는 수가 흔히 있다. 어느 일본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식품생산을 연대별로 구분해서 비교한 결과 1950년대에는 양적 증산단계였다고 한다면 1960년대에는 식량기근에서 해방되고 이제 식품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전개되면서 원예나 축산 같은 성장농산물의 주산지가 형성되다가 1970년대부터는 거의 모든 농산물의 산지가 특화되고 농가생산구조가 전업화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자 산지와 산지간, 농가와 농가간에 생산경쟁이 이뤄지면서 수급의 불균형이 극심하게 반복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러한 수급의 불

\*축협중앙회 조사부

균형이 주로 생산과잉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에 따라 생산을 조절하는 기능을 강화해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전개과정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 축산업은 마치도 일본농업이 1970년대 처해있던 상황과 비슷하게 소, 돼지, 닭의 사육이 전업화단계로 급변하면서 과소생산보다는 과잉생산의 경우가 많게 되고 또 과잉되면 그 폭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약세의 국면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면 이단계에서 우리도 깊이있게 구상되고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과잉사육을 억제하고 적정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적정사육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축산처럼 일부 축산물의 제한적 수입은 그렇다치고 상당한 중축이 아직도 도입되고 많은 사료곡물이 수입되지 않으면 안될만큼 해외의존도가 높은 여건에서는 더욱더 그 타당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서 이미 축협중앙회에서는 양축가들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관측사업을 8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것이다.

### 소값 전망

소값의 경우 매년 보면 계절적으로 11월 그리고 12월 중순경까지는 항상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때는 우선 산·야초

가 枯死되어 사료조달이 쉽지 않는데다 용자금  
상환이나 혼례 등 각종 자금수요 때문에 시장에  
소 출하는 늘어난데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소 구매력은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년에도 정부 수매정책의 효과가 주  
효하여 9월 넘어까지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그런대로 안정되던 소값이 10월도 채 가기전에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급기야는 11월들  
어 소수매가 재개되면서 더 이상의 하락세가 진  
정되고 겨우 보험세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이와같은 소값이 금년에는 어떻게 될까? 일  
반적으로 소값을 전망하는 데는 지난 기간에 비  
하여 다음 두가지 측면의 요인들이 어떻게 달라  
질 것인가를 상호 연결시켜 판단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쇠고기 공급기반이 되는 소 마리수가 늘  
 것인가? 아니면 줄어 들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  
는 쇠고기의 소비가 늘어날 것인가? 줄어 들 것  
인가이다. 먼저 소 마리수를 보면 지난해 12월  
1일 현재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는 한육우  
가 2,370천두이고 젖소가 437천두로서 이를 합  
하면 2,807천두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한육우 사육동향

(천호, 천두, %)

	86.12			85.12			증	감
	86.9	86.6	(1)	(2)	(2)-(1)	증감율		
사육호수	991	1,023	1,053	1,048	△57	△5.4		
총두수	2,370	2,607	2,640	2,553	△183	△7.2		
암 1세이상	1,156	1,256	1,320	1,353	△197	△14.6		
소 2세이상	904	984	1,028	1,047	△143	△13.7		

이중 젖소는 우유생산을 위하여 소값에 무관  
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쇠  
고기 공급량중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크게 높  
지않기 때문에 한육우 2,370천두로만 보면 1년  
전에 비하여 7.2%(183천두)가 감소되었으며 또  
한 사육두수 전망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소만을 따로보면 지난해  
12월 1일 현재 2세이상 큰암소가 904천두인데,  
이는 1년전에 비하여 13.7%(143천두)나 감소  
되었으며 내년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1세이상

의 암소로봐도 지난해 12월 1일 현재 1,156천두  
인데 이는 1년전에 비하여 14.6%(197천두)나  
크게 감소됨으로써 이제 한육우 마리수는 1985  
년 6월 2,654천두를 고비로 일단 감소세에 접  
어든 것으로 쉽게 예견할 수가 있겠다. 그렇다  
면 쇠고기 소비는 어떻게 될까? 85년과 작년을  
같은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으로 비교해  
보면 소 도축두수는 85년 653천두에서 작년에는  
965천두로 무려 47.8%나 크게 증가했으며 이중  
비축분을 빼고난 실소비두수로는 85년 641천두  
에서 작년 893천두로 39.3%가 증가됐다. 그러  
나 85년에는 비교적 큰소가 도축됐으나 작년에  
는 중암소 수매 등으로 어린소가 잡혔기 때문에  
물량으로 환산해 보면 85년 106천톤에 비하여  
작년에는 125천톤으로 17.9%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작년 12월 한달  
을 더 감안하여 연간 소비량을 추정해 보면 85  
년 120천톤이었으나 작년에는 140천톤에 육박  
할 것이며 두수로도 1,000천두가 넘게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사육두수가 감소  
하고 쇠고기소비가 증가된다면 금년의 소값은  
분명 낙관적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믿어  
진다. 다만 지난 11~12월처럼 계절적 요인에다  
양축가들의 심리적 동요까지 가세하여 출하가  
크게 늘 때에는 일시적인 하락세도 전혀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돼지값 전망

작년 12월 1일기준 농수산부 통계발표에 의하  
면 돼지 총 마리수가 3,347천두로서 지난 9월에  
비하여는 오히려 다소 감소하였으나, 특히 새끼  
를 낳을 수 있는 모돈마리수만은 같은 3개월 사  
이에 여전히 99천두가 증가되어 536천두에 달했  
다고 한다.

이처럼 12월의 돼지마리수가 작년 9월에 비  
하여 오히려 다소 감소한 것은 전혀 계절적으로  
새끼를 덜 낳는 철이라서 그렇지 작년 10월 이  
후 축산관측홍보에 따라 양돈농가들이 사육두수  
를 조절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성급한 것이다. 왜

## 돼지 사육동향

(단위: 천호, 천두, %)

	86.12 (1)	86.9 (2)	86.6	86.3	85.12 (3)	증	감	율
						1/2	1/3	
사육호수	262	245	238	226	251	6.9		4.4
총 두 수	3,347	3,397	2,932	2,873	2,853	△ 1.5		17.3
2월령미만	904	1,122	894	919	743	△ 19.4		21.7
2 ~ 4	1,213	1,116	1,095	903	1,094		8.7	10.9
4 ~ 6	625	617	449	564	529		1.3	18.1
6월령이상	605	542	494	487	488		11.6	24.0
모 돈 수	536	487	444	435	433		10.1	23.8

나하면 모돈마리수는 여전히 83년 불황때와 같이 3개월만에 50천두씩 늘어나고 배합사료량도 한달에 200천톤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돈으로는 월 750천두이상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봄철 새끼낳는 철에 많은 새끼가 생산된다면 금년 하반기 불황은 예방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예상외로 돼지고기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한 양돈불황은 불가피할 것이며 불황이 기필코 온다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돼지고기 소비는 금년에도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 크게 늘어날 전망이 없다. 돼지고기 수요 전망은 불투명한데 사육마리수만 크게 늘어난다면 가격하락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양돈농가들이 그동안 몇번 경험한 바와 같다.

## 양계산물 가격전망

우리나라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중에서 가장 선진화된 것이 양계이므로 이는 다른 가축보다 생산순기가 짧기 때문에 불황이 오더라도 단기에 그치고 또 양계농가들이 이를 생산력 증대로 극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에는 양계에서조차 특히 추석기 및 아시안게임의 성수기를 목표로 사육두수를 무리하게 증가시켜 동기간 상당한 가격하락을 면치 못했다. 이와같은 경험은 금년의 양계경기를 위하여 좋은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작년 9월 현재 산란계 마리수가 과다하여 금년 3~4월 행락철 인데도 가격약세가 크게 염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양계농가들의 자기적응능력과 작년 9~10월의 쓴 경험을 거울삼아 작년보다는 크게 안정된 경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맺는 말

전반적으로 보면 금년의 축산경기는 작년에 비하여 양돈 불황이 심히 우려되고 있을뿐 주종 축종인 소의 가격은 상당히 희망적이고 양계산물은 작년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내다볼 수 있다고 본다. 과거 수년간의 축산물 가격변동세를 분석해 보면 축산물의 소비변동률은 크지않아 년도별로 5%내외이고 높아봐야 10%를 넘기 어려운데 비하여 사육두수 변동율은 이보다 훨씬 컸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사육두수 변동율이 소비변동율보다 월등하게 클 때는 필연코 큰폭의 하락 또는 폭등현상을 빚어내곤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불때 상당수의 양축가들은 자기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한다던가 우량가 축을 키워 생산력을 증대시키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만큼 마리수를 늘려서 총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보다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축산은 소규모의 수많은 양축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그것도 상당한 종축이 아직도 수입되고 사료곡물의 수입이 날로 증대되는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여건에 비추어 적정 마리수의 자율적 조절이야말로 가장 우선하는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싶다. 특히 금년 양돈에서 사육두수의 조절은 가격안정에 관건이 되고 있다.

87년의 축산호황을 맞이하기 위하여 축산에 관계하는 각계의 협동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다.